

'반농반선' 승려노후수행관 건립

고창 선운사 개별 거주형 '석상마을' 조성키로

2008년 9월 승려노후복지에 대한 불교미래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설문문에 참가한 스님 65.4%가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스님들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의료비용과 거주안정, 경제문제 등을 이유로 고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려노후복지관이 들어설 고창 선운사 인근 석상마을 부지 전경.

이런 가운데 스님들이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며 반농반선(半農半禪)의 생활을 영위할 승려노후수행관 건립이 결정돼 눈길을 끈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은 6월 11일 경내 회의실에서 열린 제24구운영위원회에서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 건립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계획안에 따르면 선운사는 금년부터 선운사 인근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에 위치한 석상마을 부지 59만 4000㎡(1만8000평)의 부지를 중심으로 '석상마을 승려노후수행관'을 건립하게 된다.

수행관은 10여개 동으로 건립되며 1가구 1인 거주형을 비롯한 2~3인형 등 구조의 토굴개념으로 세워진다. 승랍 25년 이상, 세랍 66세 이상의 원로스님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주방식을 거쳐 반농반선의 특

간병, 복지, 수발 등을 망라한 종합 시스템을 구축한다.

선운사는 노후수행관조제 제정과 운영위원회를 통해 노후수행관을 여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며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를 모집 양성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및 고장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전문 간병인을 위한 교육 계획 등도 마련했다. 주변의 녹차밭을 이용한 다도체験관과 다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강원도의 학인스님들을 노스님들의 시자로 뒤 신구세대간의 화합과 교류를 도모할 방침이다.

법만 스님은 "스님들이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행과 포교보다는 노후대책비용마련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석상마을 노후 수행관을 통해 원로스님들이 열반시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구부사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석교 건립, 부도전 정비, 석전 스님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및 석전 스님 유목 특별전시회, 노후수행관 건립을 위한 만동불사 및 불상계 수계법회 개최 등이 결의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립적인 생활을 보장받는다.

선운사는 노후수행관 건립을 통해 노스님들이 안고 있는 노후에 대한 불안감을 비롯해 소외감, 질병, 빈곤, 역할상실이라는 현실적 짐을 교구차원에서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스님들이 승려노후수행관을 통해 무소유를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의 청빈한 삶이 노후에도 흐트러짐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

선암사, 호국영령 천도재 봉행

6월 7일 괘불 점안식도 열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남 순천에서는 이 땅의 국민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몸을 희생하신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가 열렸다.



6월 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봉행된 괘불 점안식과 호국영령 천도재.

태고총림 선암사(주지 경담)와 순천 보훈지청(지청장 강석)은 6월 7일 선암사 대웅전 앞에서 '선암사 국태민안 괘불 점안식과 함께 호국영령 천도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세 번째인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을 비롯해 경담 스님, 강석부 지청장 등 보훈가족을 포함한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초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괘불이 선암사에 모셔져 있으나, 그 크기가 너무 커 일상법회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번에 조금 작은 괘불을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불상이나 괘불은 여법한 의식은 물론 정성으로 모시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며 "대중은 사중 대소사에 괘불을 잘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어에 이어 진행된 인사말에서 선암사 주지 경담 스님은 "호국보훈의 달에 여법한 불교의식을 진행하는 것 또한 불교포교에 중요하다"며 "선암사 역사상 두 번째의 괘불을 모시고 천도재를 봉행하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괘불은 사찰에서 큰 행사를 봉행할 때 대웅전 앞마당에 법당을 만들고 부처님을 대신해 모시는 큰 불화(佛畵)이다. 이번 선암사에서 조성된 괘불은 가로 6.5m 세로 3.5m 규모로 기존 괘불의 절반 크기로 제작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명상센터 건축에 지역단체 반발

무등산 원효사에 무보험 측 공사중단 요구

사람이 진행 중인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지역단체가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무등산 원효사가 명상센터로 리모델링 중인 구 무등산 산장호텔 모습.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가 불사중인 '명상센터'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다. 원효사가 공사중인 '명상센터'를 두고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이하 무보협)가 "건물철거 약속을 이행하라"며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무보협은 "2008년 5월, 원효사측이 무등산 산장호텔을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정비 복원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로 약속했다"며 6월 2일부터 원효계곡 상가 일대에서 집회 중이다.

원효사는 1960년대 무등산 원효계곡 일대를 개발하던 당시 교통부가 건립한 무등산 산장호텔을 리모델링해 명상센터를 세우는 중이다.

현지 스님은 "흥분스럽게 방치된 건물들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하기 위해 보수공사를 진행중이다"라며 "이 건물은 종단에 등록된 부지로 개인이 철거를 약속할 사항이 못된다"고 무보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스님은 "명상센터는 영리목적에 위한 것이 아니라 무등산을 찾는 시민이면 누구나 명상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라며 "무보협이 성지화 사업이라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무보협이 제기한 명상센터 공사중단 요청과 관련해 내부공사 중단은 사유 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우리의 소원은 통일' 염원 담아 모내기

화엄사 소유 논서 제3회 통일 모심기 열려

스님, 농민, 노동자, 학생이 하나가 돼 통일쌀 모심기에 나섰다. 구례 화엄사주지 종심는 6월 9일 구례군농민회(회장 김병영)를 비롯해 화엄사주지 종담, 기아차 노조 광주지회(회장 박병규), 구례군여성농민회(회장 임채남), 조선대 총학생회(회장 박희재) 등과 함께 구례군 오이시현장 인근 8000여㎡의 논에서 통일을 향한 염원을 담은

모를 심었다. 제3회를 맞은 통일 모심기 행사는 우리 농촌을 살리고 복병농포를 돕기 위한 행사다. 2007년 북한 동포들에게 쌀을 보내주기 위한 '통일 쌀 짓기 사업'으로 시작했다.

통일쌀 짓기 사업을 위해 화엄사는 사찰 소유 토지 2만여 평을 무상 대여 했다. 이 토지를 바탕으로 지역 농민회는 경작을 하고, 기아차



6월 9일 구례 화엄사 스님과 농민, 노동자, 학생이 통일 모심기를 하는 모습.

노조는 2000여 만원의 비용을 보태 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현불샵

생활도자기 특별기획전

전화주문 ☎ 02)2004-8215~6

도자기의 본고장 경기도 이천에서 도자기의 생활화를 목표로 순수자연원료로 제작된 도자명품 생활자기입니다. 우리 도자기의 품질로 완성된 생활 명품입니다. 도자기 접시와 찻잔(머그잔, 커피잔), 다완, 퇴수기, 화병, 화로 등 다양하고 품격 높은 생활자기는 불자들의 생활을 더욱 향기롭게 할 것입니다.

- 퇴수기는 흔히 물버리 사발이라고도 하며, 버리개라고도 합니다. 다완과 잔을 대운 물을 버리거나 다완을 열어 찌꺼기를 버리는 그릇입니다. 입구가 넓으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3단도라지꽃합접시 대 20,000원/중 10,000원/소 5,000원	 동근3꽃접시3종세트 판매가 35,000원	 4발접시 판매가 45,000원	 검정사각원꽃접시 판매가 45,000원
 청자수반퇴수기 판매가 50,000원	 분청퇴수기 판매가 80,000원	 이도범퇴수기 판매가 40,000원	 분청동그리화병 대 40,000원 / 소 20,000원
 분청하얀꽃화병 대 60,000원 / 소 40,000원	 벗치화병 대 100,000원 / 소 80,000원	 보라꽃커피잔 판매가 18,000원	 카키색원물고기찻잔 판매가 8,000원
 카키색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백자도라지꽃찻잔 판매가 16,000원	 하트모양커피잔 판매가 15,000원	 연꽃백자커피잔 판매가 18,000원

현대불교@장리

www.HyunbulShop.com

이와 다양한 상품은 협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만나보세요.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원각사 박창규 종무국장

도심포교 핵심은 문화강좌와 불교대학

송광사 광주포교당 원각사는 도심 한 복판에 전통사찰이 위치해 일반인에게 포교가 이뤄지는 곳이다. 원각사에는 언제나 일거리를 잡고 분주히 움직이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재가종무원만 10명인 원각사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이는 기회의 소임을 맡고 있는 박창규 국장(사진)이다.

"도심포교는 다양한 문화강좌와 불교대학 운영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박 국장의 사찰운영 방침은 확고하다. 그의 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원각사는 전국의 선지식을 초청해 일요가족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사찰음식 공양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경전강좌, 금요일 기본교리 강좌 등을 하루도 빠짐없이 개최하고 있다. 청년법회, 어린이회, 청소년부 등 계층별 포교의 장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다.

원각사에서 열리는 법회는 일반 신도법회를 제외해도 월 20회 이상이 열린다. 매일 법회나 강좌가 열린다.

뿐만 아니다. 시군자, 요가, 다도반 등 문화강좌도 상설됐다. 매주 수요일이면 독거노인에게 도



시락 반찬배달 하는 것을 비롯해 전담 화순 전남대 병원을 찾아 다도봉사를 한다.

교육과 복지를 아우른 전방위적인 원각사의 포교프로그램은 요즘 다문화가정을 위한 단계까지 구성해 전문성을 더하는 중이다.

박창규 국장은 원각사에서 행사 전반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기획일을 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해 도심 포교에 무척 힘이 듭니다. 인력부족만을 탓할 수 없어 고민하다보니 원각사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했습니다. 지금도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박 국장은 원래 무역업

을 했다. 2008년 부친의 49재 후 도제 스님과 인연을 맺었다. 서울에서 사업을 정리하고 낙향해 원각사 종무를 보고 있다.

초심자인 박창규 국장에게 불교일은 녹록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묻고, 확인하고를 반복해야 했다.

박 국장은 "처음 접한 절집에서의 소임은 생소하고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낯설고 어려웠던 박창규 국장의 돌파구는 수행이었다. 매일 아침 일어나 명상하듯 독경CD를 듣고, 광명진인 사경을 했다. 1만번 사경을 목표로 지금도 박 국장은 매일 아침 기도를 한다.

"원각사를 찾아 보시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신도님들을 보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쟁으로만 살았던 자신을 성찰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힘든 일들에게 작은 힘이나마 보태주는 지금의 삶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일까? 박 국장의 바람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고 싶다"는 말 뿐이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